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 청장 대 민주당 후보들 경쟁 구도



전임 동구청장의 재임 중 낙마로 지난 2016년 재선거를 치른 동구는 김성환(55) 광주 동구청장의 재선 도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이 경쟁하는 구도다.

국민의당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 청장이 독주하는 모양새고, 홍기월(57) 국민의당 동구의회 부의장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관료출신인 김성환 청장은 전남도청,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26년 동안 지방과 중앙행정을 고루 경험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 부의장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2차례나 기초의원에게 당선됐던 저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임택(53) 광주 시의원, 양혜령(54) 전 광주 시의원, 오형근(54) 성형외과 원장 등이

다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임택 시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제3·4대 동구의회를 거쳐 현재 광주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의회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혜령 전 의원은 잇단 선거 패배에도 봉사단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오형근(55) 성형외과 원장도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신기(59) 광주시 시민안전실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강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북구청장

'무주공산' 시의원-관료출신 사실상 선거전 시작



송 광운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선거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당도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찬(52)·문상필(50)·조오섭(48) 광주시의원들과 김상훈(51) 북구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들이 대거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정준호(37)번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문인(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출전을 준비 중이다.

김동찬 시의원은 북구의회 의장 등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과 탄탄한 조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선의 문 의원은 교육·행정·환경복지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게 강점으로 꼽힌다. 조 의원은 광우역 활성화와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 주요 이슈를 앞세운 의정

활동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문 의원과 조 의원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동문 간 대결'로도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의장도 최근 지역을 돌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북구 부구청장과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 소장 등 지방 및 중앙부처의 풍부한 경험을 앞세운 문인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도 민주당 후보군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방(54)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복률(55) 전 국민의당 사무처장, 진선기(52)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도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장은 재선의 북구의회와 재선의 시의원을 거치면서 지역 조직이 탄탄한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주시장

주철현 재선 도전에 3~4명 후보군 거론



주철현(58) 시장의 재선 도전에 3~4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들은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 후보군들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임 재선 시장이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선거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주 시장의 재선 도전에 김유화(53) 여주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오봉(5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권세도(58) 조선대 법대 초빙교수가 민주당에 입당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사장 출신인 주 시장은 미항(美港) 여수를 '청렴도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 밤바다와 버스킹 등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 돌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것도 시정 성과로 꼽히고 있다.

재선의 김 시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회장 임대표를 받아 활동하는 등 민주당의 자

치단체장 여성 공천 몫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 출신인 권 청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등을 지내는 등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내년 여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이 눈에 띄지 않아 후보를 몰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주 시장에게 석패한 김영규(60) 전 여주시의회 의장과 조준의(50)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임우진 청장 - 노조 갈등 이어지자 너도나도 도전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임우진(64) 구청장에 맞서 다른 후보들이 경쟁하는 구도다. 임 청장은 지방과 중앙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 서구지부 사이의 갈등이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약 중인 김보현(52) 의원과 최근 1년간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주목받았던 김영남(50) 의원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주경남(54) 시의원도 자천타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애초 임 청장의 현직 프리미엄 벽이 높아 출마를 주저했던 당내 후보군들이 임 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활동가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김보현 시의원은 지방자치와 중앙정치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제7대 후반기 광주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롯데쇼핑의 월드컴퓨터장 무단 재임에 의혹을 간질기게 지적하며 이름을 알린 김영남 의원에 조직을 키우고 있다. 또 최근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1~3학년 전면 확대 실시'를 주장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심철의(44) 광주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국민의당 당원직 최고위원인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에 이름을 알리는 등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밖에 신광조(60) 전 서구 부구청장은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여부를 저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광산구청장

현직 청장 광주시장 도전에 춘추전국시대 예고



현직인 민형배(55)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상호(51)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윤빈(53)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 김영록(50)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윤봉근(59) 전 광주시의회 의장, 임한필(45) 광산문화경계연구소 소장 등이 당내 경선에 뛰어든다.

김상호 전 이사장은 현 민청과의 인연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고, 오랜 시간 광산구에 공을 들이던 이윤빈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평가다. 윤 전 의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도전하는 등 오래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출마 준비를 다지고 있다. 임한필 소장 또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나섰고, 최근에는 송전담 이전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며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시시장

조충훈·허석·윤병철 출마 준비 ... 노관규 행보 주목



민주당 후보로는 조충훈(64) 현 시장과 허석(52) 한국철화연구소 소장, 윤병철(55) 전 순천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관규(56) 전 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조 시장은 재임기간 순천만국제정밀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 등 순천시 발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시장은 민선 4기에 이어 7기와 8기 민선 순천시장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이번이 4선 시장 도전이라는 점에서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 내 민심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과제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는 선거 개입 의혹도 해소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 조 시

장에 석패한 허석 소장이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순천 시민운동을 통해 기반을 넓혀온 허 소장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민들과 접촉을 넓혀 참여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구희승(54) 변호사와 기도서(54) 전 전남도의원, 박동수(64) 전남도의원, 양효석(50) 회계사, 이창용(67) 순천시의회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석패한 구 변호사는 국민의당 순천시 지역위원장을 맡아 당 지지기반이 강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 전 도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이며,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양 회계사는 순천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론을, 순천시 총무국장 출신인 이 의원은 행정 경험 등을 내세우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 남구청장

최 청장 빠진 자리 민주당-국민의당 뜨거운 선거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재선의 더불어 민주당 최영호(52) 청장이 최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남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최 청장이 빠진 자리에 민주당 후보군들이 난립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병완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여 어느때 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집(54) 지역미래연구원장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철(50) 새빛상 상임대표 등이 경선을 준비중이고, 김집기(59) 광주 남구의원과 이철원(57) 변호사, 김창용(54) 전 광주시의원, 성현출(54) 광주 남구문화원장, 박기수(52) 남구문화예술회회장 등도 경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 민원실장을 역임한 김병내(44)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

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군이 난립한 가운데 경선에서 여전히 남구에 튼튼한 조직을 갖춘 최영호 청장의 입김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선 국민의당의 도전도 뜨겁다. 국민의당 후보로는 앞선 지방선거에서 최 청장에게 석패한 김만곤(60) 세무사와 박춘수(57) 광주시의회 부의장, 유정심(61) 광주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3선의 남구의원을 지냈고, 주민들 세무 무료 상담활동을 통해 꾸준히 바둑 민심을 다져왔다. 박 부의장은 남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경험 활동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 '여장부'로 불리는 유정심 시의원도 남구의원들과 시의원을 두루 거친 의정활동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시장

박홍률 국민의당 탈당 여부 쟁점 ... 도전 후보 4명



목포시장 선거는 이들 3자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시장은 국민의당 탈당 여부다. 박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강점이다. 김종식(67)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옷을 입고 박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목포 부시장 역임하고 완도군수 3선을 지낸 배태량 지방행정가다.

국민의당에선 배웅태(62)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재도전의 의사를 밝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 전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섭렵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는 이들 3자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박시장의 고민은 깊어진다. 국민의당에 남아 있으면 배 전 부지사, 민주당으로 가면 김 부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해 어려움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옥(52)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직접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권 부의장을 다크호스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열(63) 전 목포항만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중앙부처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나주시장

강인규 재선 도전에 입지자 6~7명 준비 중



강인규(62) 현 시장의 재선 도전에 6~7명의 입지자들이 도전을 준비중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원도심 복원 문제와 혁신도시 미래 청사진 제시 등의 지역 현안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강인규 현 시장과 이재창(56) 전 고려대학교수, 이윤범(51) 현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계(70) 나주배원농협 조합장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나주시 의회위원장을 거쳐 시장으로 당선된 강인규 현 시장은 3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안정된 조직운영으로 빛가람적 신도시 연착륙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윤범 부위원장은 전 국회 비서관과 대한 중앙선대위 공약개발 등을 맡는 등

정책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계 조합장은 3선의 조합장 경륜을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학박사로,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했던 이재창 전 고려대학교수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대동(71) 전 시장과 김욱기(58) 전남도의회이 시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역임해 바닥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김대동 전 시장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빛가람도시 구도심의 상생발전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온 김 도의원은 광주일보와 무등일보에서 쌓은 언론 경험과 도의원 활동을 내세워 도전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나주=손철기기자 ycson@kwangju.co.kr